

중국을. 향한. 테스트. 시장. 기능. 간과하지. 말아야.

2004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2004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이 중화민국(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다. 전시장(臺北世界貿易中心)은 서울 코엑스 태평양관의 2.5배 정도의 규모였다. 유럽 및 미주지역의 참가사가 많은 반면, 단체관을 통한 참가가 대부분이며 에이전시들을 통한 참가가 주를 이루었다.

주제국가는 이탈리아였는데, 도서전시보다는 일러스트레이션 위주로 대부분의 공간을 할애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출판사의 참가가 활발한 상태이며 전시장은 매일 저녁 8시까지 개장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인판매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도서전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므로써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집계결과 관람객 수는 43만6,000여 명에 달하였다. 일반인 입장료는 150元(약 5,500원)이다.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경국제도서전과 견줄 만큼 큰 전시회이며 세계 4대 국제도서전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해외국가의 참가가 활발하다. 이 도서전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도서를 통한 문화교류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 ▶중국어 도서시장의 세계화다. 1987년 이래 12회째 계속되고 있는데, 전시장은 국내관, 국제관, 문화기술관, 번역본 출판관, 아동관, 만화관 등으로 구별되어 도서가 전시되며,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및 행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된다. 또한, 국제도

서전이란 이름에 걸맞게 영어원서 시장 및 중국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서 서구 유력 출판사들의 참가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서울국제도서전 외국사 유치차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부스씩 교환참가하였고, 2002년에는 교환부스를 1개에서 2개로 확대, 처음으로 한국관을 설치하여 전체 5부스(45제곱미터) 규모로 국내 6개 출판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였다. 2003년에는 한국관의 전시대 규모도 두 배로 늘어나 10부스(90제곱미터)에 전시참가사 또한 출현을 포함 10개사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저작권 거래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2004년에는 2003년과 동일한 규모의 전시대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2,3년간의 한국관 운영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 6개사와 함께 전시회를 준비, 참가했다. 그 결과 한류열기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출판 저작권 거래를 통해 이전 참가 때보다 월등히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참가사 전체의 저작권 계약과 수출 실적은 2003년의 경우 10개사 참가, 23건 9만6,000달러였으나, 2004년에는 6개사 참가, 115건 계약에 41만7,000달러를 수출하였다. 주로 아동도서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도 상담된 건에 대한 수출 계약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6개사가 참가하여 4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거둔 것은 참가사들도 예측치 못했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

2004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에서 국내 출판



중화민국(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04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 광경. 방송이나 언론에서 도서전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므로써 관람객이 43만 6,000명에 달했다.

사들이 이처럼 저작권 계약을 많이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 지난 2003년 도서전에서는 세계적인 불황여파로 출판계에서도 신규투자가 줄어들고 있었고, 해외 저작권 수입을 통한 신간 출간도 하향세였으나, 이 위기를 극복, 2004년에는 도약을 향한 투자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4월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대만은 3월에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출판사는 이런 흐름과 관련 신간 출간을 통해 2003년의 경기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도서전에서의 한국단체관 운영은 2004년이 세 번째였는데, 그동안의 참가경험을 토대로 각 참가사가 치밀한 사전준비로 저작권 상담 및 계약에 차질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4년에는 6개사가 참가, 2003년의 10개사보다 줄어들었지만, 계약실적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보인 것도 그동안의 참가경험이 큰 역할을 했음을 입증한다.

중국의 민족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만디(慢慢地) 형이다. 한국의 민족성이 불의 성격이라면 중국인들은 흐르는 물처럼 한번에 모든 것을 잘 결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을 두고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저작권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도서전은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가해야 한다. 한편 중국어권에 대한 저작권 수출은 중국대륙, 홍콩, 싱가포르

등의 중국어권 국가들과는 분리되어 관리가 된다.

2005년부터는 출판사 연합 기금회 형태의 주최자가 새로 선정되어, 2004년과 같이 개인출판사가 주최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 들어설 기금회의 이사장(INK印刷出版社 總經理)이 한국 태생의 화교여서 한국 출판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2005년 타이베이도서전에 이런 점을 고려,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화민국(대만)은 비록 인구나 면적 등에 있어서 작은 나라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국민소득(GDP)이 높은 국가다. 그만큼 구매력이 있으며, 국민독서를 또한 높은 상태이다. 또한 방문판매가 활성화돼 시리즈물의 계약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화민국(대만)은 중국대륙으로 진입하는 테스트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꾸준한 접촉과 시장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안준모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한국에서 참여한 출판사들은 이번 도서전에서 41만 7,000달러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 2003년에 비해 높은 결실을 거뒀다.

